

정재룡 교문위 전문위원·김희준 차장검사 '자랑스러운 전남대인' 선정



전남대는 개교 63주년(6월9일)을 맞아 정재룡(55·왼쪽) 국회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김희준(48)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자랑스러운 전남대인'으로 선정했다.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은 경영대학 경영학과(1986년 졸업) 출신으로 제9회 입법고등고시를 통해 공직에 발을 디딘 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2015년부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과대학 사법학과(1988년 졸업) 출신인 김희준 차장검사는 서울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대구지검 검정지부장 등을 거쳐 지난 2월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부임했다. 시상식은 오는 8일 개교 63주년 기념식에서 열린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대-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협약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와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유기호)는 최근 대학 및 지역산업 발전과 창조경제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대 제공>

강진 성전중 '감성교실 1박2일'



강진 성전중학교(교장 김중만)는 최근 강진군 한 펜션에서 '감성교실 1박2일'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놀이와 독서, 명상을 함께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강진 성전중학교 제공>

광주광산경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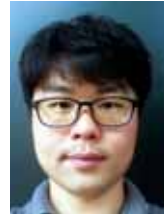
광주광산경찰(서장 임광문)은 2일 광산구 어룡초등학교 정문에서 또래 지킴이 명예경찰소년단과 녹색어머니회, 패트돌맘 회원들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광산경찰서 제공>

“영화 찍으며 학생들 마음 키지고 꿈 생겼어요”

순천 팔마초 학생들 단편영화 제작

학교폭력·왕따 상대방 입장 대보고 해결책 고민 다양한 재능 발굴 위해 학교·사회 적극 나서야

순임이는 친구들에게 인기 많은 이슬이를 볼 때마다 질투를 느낀다. '어떻게 하면 많은 친구를 사귀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노래연습을 시작한다. 그런데도 반응이 없자 친구들의 이야기를 무조건 들어주기로 한다. 이후 만나 는 사람마다 칭찬해주기 등 여러 방법을 시도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결국 화가 나서 거짓말로 이슬이의 협담을 파뜨린다. 다음날, 이슬이가 결석하자 미안한 마음에 찾아가 사과하는데 괜찮다며 오히려 선물을 건네는 모습에 진심으로 화해하고 친한 친구가 된다.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은 방송에 나오는 가수나 배우를 동경하며 그들의 말과 행동에 큰 영향을 받아요. 학교 폭력과 왕따를 주제로 단편영화를 만들며 상대방 역할에서 생각해보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교육이 이뤄진다고 생각해요.”

지난해 9월, 김 교사와 방송부원 6명이 처음으로 단편영화를 만들기로 했다. 친구와 언쟁이나 부모님과 불화 등 자신들의 고민과 삶을 영화에 담기로 했다. 방송부원들이 영화를 시작한 후 만난 가장 큰 난관은 촬영과 편집이었다. 시나리오를 쓰고 연기는 직접 할 수 있었지만 촬영과 편집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없었기 때문이다. 도움을 준 것은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관계자들이었다. 이들과 함께 매주 월요일 밤과 후 교육시간에 학생들 탐방을 이 더해져서 단편영화 '두 소녀'가 탄생했다.

“다양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방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특히 학생들은 방송에 나오는 가수나 배우를 동경하며 그들의 말과 행동에 큰 영향을 받아요. 학교 폭력과 왕따를 주제로 단편영화를 만들며 상대방 역할에서 생각해보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교육이 이뤄진다고 생각해요.”

지난해 9월, 김 교사와 방송부원 6명이 처음으로 단편영화를 만들기로 했다. 친구와 언쟁이나 부모님과 불화 등 자신들의 고민과 삶을 영화에 담기로 했다. 방송부원들이 영화를 시작한 후 만난 가장 큰 난관은 촬영과 편집이었다. 시나리오를 쓰고 연기는 직접 할 수 있었지만 촬영과 편집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없었기 때문이다. 도움을 준 것은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관계자들이었다. 이들과 함께 매주 월요일 밤과 후 교육시간에 학생들 탐방을 이 더해져서 단편영화 '두 소녀'가 탄생했다. 가장 큰 비중이지만 악역이란 이유로 인기



순천 팔마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작한 단편영화 '두 소녀'의 한 장면. <유튜브 갈무리 화면>

가 없었던 순임이 역할을 맡은 김경민 양. 방송부원들 중 가장 안정된 연기력으로 주인공을 맡은 그녀는 방송에 한층 자신감을 얻었다.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부끄러워하던 학생들은 이제 아나운서와 배우라는 목표가 생겼다.

김 교사는 학생들과 작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시작했는데 의외의 선물을 받았으며 만족스러워 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방송부원이 아닌 다른 학생들까지 참여할 또 다른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방과 후에도 학원에 다니느라 무척 바빠요. 그래서 전체 학생이 참여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모두가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화를 제작하며 달라진 학생들을 보며 수업시간에 배우는 지식이 교육의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학교와 사회가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발굴해서 키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대인예술시장 별장프로젝트, 네팔 지진 성금 전달

대인예술시장 별장프로젝트 사업단이 3일 네팔 지진피해 어린이를 돕기 위한 성금 600만 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에 전달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김은영 초록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정삼조 별장 프로젝트 총감독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1~5월 대인예술시장에 참여했던 셀러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액

(550여 만 원)과 지난 5월 예술아시아에서 초록우산 재단 직원들이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해 마련한 금액을 합한 것이다. 대인예술아시아장은 지난해 대인시장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운영하는 하문순씨가 20만 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모두 700여 만 원의 모아 지역 사회에 기부하기도 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전남복지재단, 위기 가정 지원 '메신저' 발대식

전남복지재단(이사장 노진영)에서는 3일 오후 2시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이낙연 전남지사를 비롯한 내빈과 전남복지메신저 3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가정 발굴·지원으로 안정된 복지서비스 기반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전남복지메신저' 발대식을 가졌다. 복지메신저는 도내에 활동중인 900명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노인을 돌보기 위해 마을을 방문할 때 얻는 마을의 위기가정에 대한 정보들을 재단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재단은 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수행기관을 메신저 활동 협력기관으로 지정해 복지취약계층 발굴 및 공공서비스 연계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정수인씨 전주대사슴놀이 판소리 장원



국악 명인·명창 등용문인 제41회 전주대사슴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명창 부문에서 고창 출신 정수인(35·여·서울)씨가 장원을 차지, 대통령상과 함께 상금 4000만원을 받았다. 정씨는 지난 1일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대술무대에서 열린 본선 경연에서 심청가 중 '주과포해' 대목을 애절하고 구성지게 불러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주과포해'는 심봉사가 자신의 아내이자 딸 심청의 어머니인 객씨부인을 잃고 땅에 묻으며 슬퍼하는 대목이다. 이번 대회는 '일씨구, 우리 가락과 놀다'라는 주제로 열린 67명(학생 345명) 등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5월 30일부터 사흘간 한

옥마을 일대에서 열렸다.

대사슴놀이는 조선시대 판소리, 백일장, 무예 대회 등을 포함한 종합 대사슴놀이로 출발했다가 임진왜란 등으로 중단됐다. 그러다가 1975년 전주에서 판소리, 농악, 무용, 시조, 궁도 등 5개 부문으로 부활한 뒤 매년 단원을 전후해 열리고 있다. 제1회 오죽송 명창을 비롯해 조상현, 이일주, 조룡달 씨 등 내로라하는 명창과 민간문화재들이 이 대회를 통해 배출됐다. <고창=고현석기자 ghs@>

옥마을 일대에서 열렸다. 대사슴놀이는 조선시대 판소리, 백일장, 무예 대회 등을 포함한 종합 대사슴놀이로 출발했다가 임진왜란 등으로 중단됐다. 그러다가 1975년 전주에서 판소리, 농악, 무용, 시조, 궁도 등 5개 부문으로 부활한 뒤 매년 단원을 전후해 열리고 있다. 제1회 오죽송 명창을 비롯해 조상현, 이일주, 조룡달 씨 등 내로라하는 명창과 민간문화재들이 이 대회를 통해 배출됐다. <고창=고현석기자 ghs@>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 ▲기재우·엄해영씨 장남 형규군 이견철(전남발전연구원장)·김명숙(진도 석교초 교장)씨 장녀 지성양=6일(토) 낮 12시 서울 KW컨벤션센터 02-598-3000.
- ▲조성광(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주희숙씨 장녀 이라(안양양지초등학교)양 최희영(현대로템 미안마 주재대표)·남기연씨 차남 환우(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군=6일(토) 오후 1시 안양 웨딩노블레스 031-381-0100.
- ▲전병호(남도일보 부회장)·김금례씨 장남 정인(MBN 사회부 보조팀 기자)군 이길영·김옥자씨 장녀 주연(KG이니시스 회계팀 대리)양=13일(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프라자 1층 그랜드볼룸.
- ▲정석주(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김문정씨 차남 순갑군 정권기·박혜선씨 장녀 화영양=13일(토) 오후 5시 라페스타(메트리어트) 2층 엘루체.

동창회

-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조보규)월례회=5일(금) 오후 6시 30분 금강산식당 062-224-0808.
- ▲재광 전주신흥고 동문회=9일(화) 오후 6시 30분. 해뜰남 봉선점 062-654-1020. 회장=010-3648-4430.
- ▲경주 김씨 광주전남 동창회 재광 이사회=5일(금) 광주시 동구 금남로 맛집 한겨레 010-6455-6296.
- ▲전주 이씨 대동중앙원 광주전남지원 이화회 월례회(의=9일(화) 오후 6시 30분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 ▲2015년 한국나라사랑학회 국제보훈 학술대회=광복 70년 통일대비 한국전쟁 호국영웅과 보훈외교 방향, 5일 오후 1시 30분 송원대학교 대학본부 회의실 062-360-5880.
-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한부

- 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 ▲광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365일24시간 상담가능.
-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할 가정은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 ▲무로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방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엠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 ▲이발기술 배우실 분 무료로 전수해 드림=복구 우산동 덕성이발관 062-524-0680.
-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문화교실 무료 수강생=노래교실(화·수·오후 2시), 꽃꽂이교실(수·오후 10시), 탁구교실(수·오후 2시), 자율탁구교실(화~목·오후 10시), 영어교실(화·목·오후 4시) 062-410-5000.
- ▲푸른학당 자원봉사 및 학생=문해교육(한글교정), 초등·중등 과정, 검정고시반. 062-529-1188, 010-9940-1769.
- ▲한마음 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장애인 사물놀이 수강생=장구, 징, 팽과리, 북 함께할 장애인(손이 자유로우신 분), 악기 후원 받음. 062-431-8025, 010-9676-0828.

- ▲놀이때 '신명' 단원=연극·탈춤·풍물·소리 등에 관심 있는 젊은 남녀 062-527-7295.
- ▲사랑모아 가족복지회원=종이공예·독서모임·성교육 스테디 강사, 생활체육 배드민턴 회원 모집 062-385-0422.
- ▲중합민요사랑모임 회원=민요를 사랑하며 사회 봉사에 뜻이 있는 45세 이상 남녀 019-601-6989.
- ▲팔콘문화 아카데미(원장 조대호)회원

- =만화기초수업 초등학생부·중학생부·고등학생부·일반부·취미반 수시모집(원장님 1 : 1개인지도, 남구 방림동 생신협 3거리 070-4065-5054, 010-8947-3006.
- ▲이매옥씨 별세 조공기·제기·회식·경회식 모친상=발인 5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삼가 故人之冥福을 빕니다	
201호 故정철규 님(남/87세) 子/子婦 : 정관우/김석희, 관중 이영란 女/婿 : 정영숙/서호연, 영미/나정원 未亡人 : 영란순 ●발 인 : 6월 4일 ●장 지 : 정충선영 ●연락처 : 227-4381	402호 故재중건 님(남/71세) 子/子婦 : 재지희/김나영 女/婿 : 재지순/서한우, 지희/김종길, 재영/이민희 ●발 인 : 6월 4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14
101호 故김준호 님(남/69세) 子/子婦 : 김경환/조신영, 현우 女/婿 : 김진희/김석준 ●발 인 : 6월 5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6	102호 故최은희 님(여/76세) 子/子婦 : 박광영/이정숙, 광식/박미영 女/婿 : 박원호/최영남 ●발 인 : 6월 4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6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